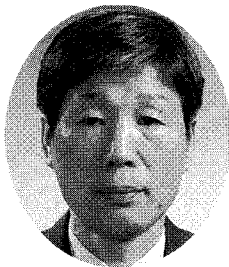




'99

농약수급 어떠했나?

농약수급 자율화 10년, 농약업계 '수준·경험' 충분해
농협재고율 다소 높고 시판상은 예년수준, 농약수급 큰 문제없어



조형래
농림부 농업경제계과

올해는 농약수급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자율화된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농약수급은 그해 기상과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물량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민간자율에 의한 농약수급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부족현상과 재고 과다와 같은 위험부담(risk-taking)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풍년 농사를 위하여 기상 정보와 적기병해충 예찰, 병해충 발생전망 등을 분석·예측하여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병해충별 보유농약 점검 등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 농약업계 또한 그해 병해충의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적절한 농약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97년 대발생한 버벌구로 인하여 벼농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돌발병해충의 적기방제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

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병해충 발생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율에 의한 적절한 농약수급을 위한 농약업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테면, 올바른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 적절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추는 역할, 필요한 재고를 유지하는 역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 등 수요와 공급을 질적·양적으로 연결하고 균형있게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율화 이후 10년이 되는 지금, 우리 농약업계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수준이고 많은 경험도 쌓았다고 생각된다.

올해의 농약 수급

올해의 병해충 발생은 엘니뇨 다음해였던 지난해 보다는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그러나 최근 지구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화된 기상이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낙관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농약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농약은 없는지 점검하고 병해충 발생 예찰을 정밀히 실시하여 사전대비함과 동시에 지역

간 전수배 체계를 확립하여 필요한 농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병해충 발생동향을 보면 초기 적기방제 등으로 전·평년에 비해 발생면적이 적었다. 또 8월 중순 이후 점차 감소하여 농약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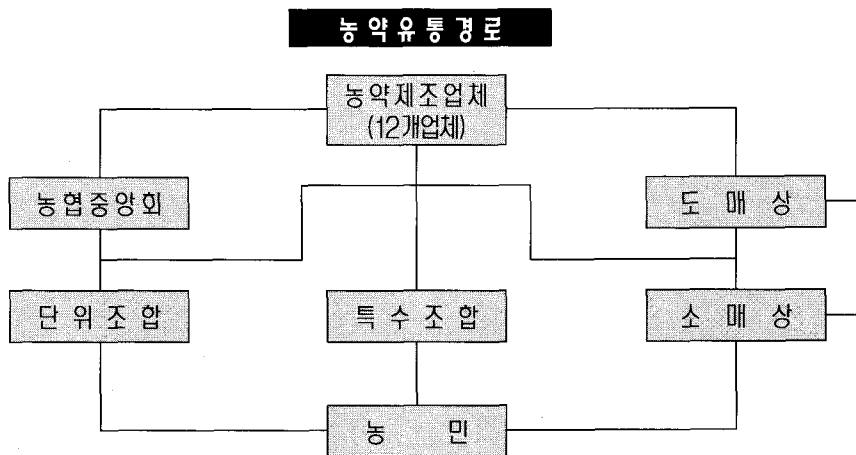
농협외의 경우 올해 수도용 농약 공급량은 지난해에 비해 11%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용 살충제는 23%나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벼물벼구미가 29%나 적게 발생하였고 벼멸구는 73%나 적게 발생하는 등 병해충 발생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인해 금년도 전체 농협농약은 예년보다 약 10%정도 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 판매상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살충제의 확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전국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지역별로 원활한 농약수급에 이취운점이 없진 않았으나, 이젠 민간자율에 의한 농약수급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접국가들의 농약수급체계

중국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전국농업기술추





광복무중심내 예찰처의 병해충 예찰자료를 활용하여 농약수급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닌 현단위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파악, 발생정보를 확산하여 농약수급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은 현단위로 세분화하여 예찰 및 농약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며 일선 담당자들의 방제업무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

'97. 11월 필자가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거리 중의 하나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농약수급이었다. 구마모토 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맡은 농업연구센터 전직 소장에게 물어 보았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벼멸구 방제에 어려움이 없었는지와 앞으로 벼멸구 방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생각밖의 대답을 들었다.

“어려움도 없었고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방단위와 농약업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정확한 판단은 병해충 적기방제는 물론 적정한 농약수급으로 생산업체의 재고과다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임으로써 지금보다 한단계 향상된 농약수급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고 하였다.

물론 일본은 우리와 벼수확 시기가 다른점도 있겠지만 현단위 지방에서 직접 병해충방제와 농약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관련자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농약수급

민간지출에 의한 농약수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약수급체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지방단위(시·도, 시·군)에서 지역별로 정확한 예찰을 통하여 직접 농약 생산업체에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농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약 생산업체도 지방단위의 예찰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단위의 예찰 정보를 잘 분석·예측함으로써 필요한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와같이 지방단위와 농약업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정확한 판단은 병해충 적기방제는 물론 적정한 농약수급으로 생산업체의 재고과다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임으로써 지금보다 한단계 향상된 농약수급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농약정보**